

韓醫學 정체성 논의에 대한 연구

- 原典學을 중심으로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 韓醫學古典研究所²
白裕相^{1, 2 *}

A Study on The Dispute about The Identity of Oriental Medicine - Focused on Oriental Medical Classics

Baik You-sang^{1, 2 *}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In this paper, on the assumption that the dispute about the identity of Oriental Medicine(OM) will finally act as an developmental element of Oriental Medicine otherwise total Korean Medicine, at first we think about what are he meaning of identity and it's essential elements, and search how to establish the standard of the identity of Oriental Medicine. From this working, the direction of the research in the Oriental Medical Classics that is one of the detail field in OM will be drawn out.

The identity of Oriental Medicine must be decided according to what is the mission or existence value contributing for Korean Society, not to the form of materiality or immateriality. The core of the identity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is relevant to being a help to other research fields through reinterpreting the Classics. And the most important issue of research are the analysis of thinking pattern In OM, and systematization of OM knowledge and information.

Key Words : The Oriental Medicine, identity, Oriental Medical Classics

I. 序論

어떠한 학문 분야에서 정체성의 논의가 일어나는 것은 보편적으로 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의학과 같은 응용학문의 경우에는 방법론이 같은 패러다임 속에서 비슷하다 하더라도 실제 임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시대별,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 의학으로서의 가치를 재고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정체성 논의가 일어나게 된다.

韓醫學은 근현대를 거치면서 비주류 의학으로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계속 외부에 보여주어야 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현대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으므로, 정체성 논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정체성 논의는 한의학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한의학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교육적 차원에서 무엇을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등등 어느 정도 한의학에 필요한 부분에서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한의학의 존재 가치나 필요성에 대해 외부로부터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 정체성 논란이 일어

* 교신저자 : 백유상.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baikys@khu.ac.kr Tel : 02-961-0326

접수일(2010년 9월3일), 수정일(2010년 9월17일),

게재확정일(2010년 9월18일)

났다. 이러한 경우에 한의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고유한 한의학의 내용과 형식을 고수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거나, 방어적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집중적으로 알림으로써 정체성을 인정받는 태도를 취하였다. 한편 한의학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회의를 가진 사람들은 기존의 한의학이 가진 정체성을 해체하고 재정립하기를 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의학의 정체성 논의가 결국에는 한의학 또는 한국의학 전체에 발전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우선 정체성의 의미와 그 핵심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의학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또한 이로부터 韓醫學의 세부 분야인 原典學 연구의 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본 논문의 주제는 韓醫學 정체성 자체에 대한 연구 또는 그 역사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 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임을 밝혀둔다.

II. 本論

1. 정체성의 의미

한의학의 정체성 논의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정체성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라고 되어 있다¹⁾. 즉 각각의 존재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특성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영어로는 identity 라고 하는데 동사형인 identify는 존재를 식별하고 증명한다는 의미이며, ‘iden’은 ‘동일한[the same]’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즉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동일하다고 느껴지는 존재성을 의미한다.

한의학의 정체성을 살펴볼 때, 한의학 자체를 하나의 존재로 보고 그 정체성을 논의할 수도 있으며, 좀 더

작은 단위로서 시대적 또는 지역적으로 다양한 학파나 의가들 각각의 정체성을 논할 수도 있다. 사전적 의미로서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성을 의미하므로, 정체성의 대상은 어느 정도 독립적이고 배타적이며 상당한 시간 동안 유지되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성질들[properties]은 대상 자체의 존재 목적 또는 존재 방식의 핵심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시대별로 많은 의가들이 저술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이나 사상을 피력해왔지만 이들의 다양한 주장들을 모두 정체성 논의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체성이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의가 있으므로 어떠한 의학사상이 자체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체성 논의의 의미가 없어진다. 반대로 개인의 사상이 점점 하나의 학파를 이루어 명맥을 유지하면서 더 발전되기를 추구 하였다면, 또는 역사적으로도 실제 그러한 결과를 가져 왔다면 그 경우에는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진다.

2. 정체성 인식의 상대성

정체성은 어떠한 사물의 본성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동일함을 인식하는 행위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즉 인식의 필요성이나 인식 과정의 조건에 따라서 정체성의 성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체성 인식의 정도 차이를 한의학의 역사 속에서 찾아 실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 清代에 발전하였던 溫病學의 경우 독립된 학문 분야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온병학자들이 溫病學과 傷寒論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였고, 반면에 상한학파에서는 溫病도 傷寒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상한론 이외에 따로 온병학이라는 분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온병학자들은 기존 의학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였으며, 상한학파들은 자기 이외에 또 다른 독립적인 존재의 정체성을 부인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일견 서로 간의 정체성 대립으로 보이나 인식의 정도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1) 다음 국어사전. <http://krdic.daum.net/dickr/contents.do?offset=A034015900&query1=A034015900#A034015900> 2010. 07. 25.

온병학자들은 임상 현장에서 外感 질환을 치료하는데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깊이 실감하고 새로운 의학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러한 인식은 새로운 인체관, 질병관을 재정립하는데까지 확장된다. 온병학자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욕구가 강하였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온병학의 기본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다.²⁾ 반면에 상한학자들은 상한론의 범주 안에 새로운 '독립적인 존재'가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대처하였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았다. 그만큼 이미 주류의학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의 질병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보다는 현상 유지 정도로 안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³⁾ 온병학과 같이 처음부터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배타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낼 경우에는 정체성 확립의 욕구가 강해지지만, 그것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결속력이 느슨한 일종의 '문화'나 '분위기' 수준에 그치게 된다.

정체성 확립의 요구는 온병학자들처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타자에 의하여 제기되기도 한다. 현대의학이 한의학에 대하여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요구하거나 또는 중의학이 자신에 대비하여 한국 한의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타자에 의한 요구가 강해질수록 그 요구를 받는 주체는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부작용도 생긴다. 한국한의학의 경우는 근세 역사로 볼 때 이와 같이 타자에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주된 동기가 되어 정체성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⁴⁾ 즉, 한국 근현대 역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의학이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능동적인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3. 정체성과 세계관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의 하나는 그 밑바탕에 인간과 우주에 대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온병학자들이 서로 조금씩 의학사상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온병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질병과 사회를 바라보는 공통적이면서 뚜렷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온열의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치료해 나가는 것이 곧 궁극적으로 사람의 정기를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하였으며⁵⁾, 보다 객관적인 진단법과 변증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치료의학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의미 있는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⁶⁾ 온병학자들이 이러한 관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발전할 수 있었는데, 만약 밑바탕에 인간과 세계에 관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단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창하였다면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공고하게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체성을 내세우는 경향성일 뿐 엄밀한 의미에서 정체성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청대의 상한-온병 논쟁에서 비록 상한학파가 뚜렷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 논쟁은 본질적으로는 정체성 논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두 학파 간에 인간 자체나 인간의 질병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상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체성의 핵심은 어떠한 존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체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요소들의 총체, 그리고 패러다임과 관련된 여러 분명한 관점들이라 할 수 있다.⁷⁾ 그리고 이 핵심이 무엇이나에 따라 해당 존재의 가치와 행동양식들이 결정되는데, 특히 밑바탕이 되는 세계관이 존재의 다른 여러 속성들

2) 전통의 陰陽論을 바탕으로 氣血營衛論의 새로운 생리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온병 및 잡병의 병인병기를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은 청대 온병학자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

3) 홍원식, 중국의학사,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p.299, 1984.

4) 여러 번의 한약분쟁 과정에서 한의학의 본질이 무엇이며 제도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한의학을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5) 온병학은 溫熱의 사기를 몰아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진 의학체계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신체의 손상된 陰氣를 회복시키려 하였다. 이 점이 傷寒論과의 중요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6) 온병학자들은 고증학의 실증주의에 입각하여 진단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지표를 중시하였다. 많은 의사들이 객관적이며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학체계를 만듦으로써 의학을 대중화하려고 하였다.

7) 모든 존재들은 자신의 인생관과 외부 환경에 대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자각하게 된다.

보다 더 중요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의학에서 음양오행학설, 장삼론, 경락론 등의 기본 이론과 이들을 뒷받침하는 인체관, 세계관이 정체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가정한다면, 한의학 내부에서 다른 새로운 이론체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상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은 일반적인 학술 논쟁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논쟁이라 하더라도 현대의학처럼 다른 세계관을 가진 분야와의 논쟁일 경우에는 그것은 정체성 논쟁이 된다. 이처럼 정체성 논란의 이면에는 구성원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매우 복잡한 역학 관계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실제 전개되는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4. 정체성의 유지

일반적으로 정체성 논의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또는 유지하지 못하는가, 아니면 유지해야 하는가 또는 유지하지 않아야 하는가 등의 여러 입장이 혼재되어 있다. 여기서 정체성 유지라는 말은 핵심[core]의 보존과 관련이 있다.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입장에서는 그 핵심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변화하는 환경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정체성을 무조건 고수하려고만 한다면 도그마에 빠질 우려가 있다.

또 다른 정체성 보존의 동기로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객관화 하는 경우가 있다.⁸⁾ 예를 들어, 현재 한국한의학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한국한의학은 현대의학으로부터 자신을 무엇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받아 왔으며, 최근에는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중국전통의학과 대비하여 어떠한 차별성을 제시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즉,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정체성 논의가 일어나고 정체성이 정의되며 또한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이어져 온 정체성의 핵심에 대하여 강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존의 정체성이 허물어진다고 하더라도, 환경 변화 속에 몰입하여 새로운 경험들을 다시 귀납적으로 정리해냄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즉 정체성의 발전적 해체 및 재정립이라 말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정체성을 쉽게 정립하기 어려운 경우, 현실 안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가치를 그 대안으로 삼아 그에 대해 정체성 핵심의 지위를 부여하고 의존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의지하여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5. 정체성 논의의 주체

이러한 정체성 논의를 일으키고 진행해 가는 주체들은 주로 누구인가. 상황 변화에 민감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연구자 또는 교육자들이, 정체성이란 무엇이며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가의 당위성을 고민하게 된다. 왜냐하면 연구와 교육은 모두 정해진 답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한의학 모습이 어떻게 바뀔 것이며 그에 따라 어떠한 상을 목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떠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임상가들도 이러한 논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현실 속에서 제도와 환경이 크게 바뀔 때마다 큰 혼란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다.⁹⁾ 만약 이러한 고민들이 다시 현실 개선의 욕구로 표출되어 사회에 반영되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임상가들도 정체성 논란에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면 정체성의 본질까지 다루지는 못할 것이다. 온병학자들과 같이 뚜렷한 역사의식을 가지지 않은 임상가들은, 엄밀히 말하면 정체성 논쟁의 기저에 참여하고 있다 기보다는 정체성 논쟁의 판 위에 서서 부침하고 있다고 비유할 수 있다.

8) 업석기, 최원철. 本能과 本性에 基礎한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意義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 23(2). pp.63-87.

9) 일본 한의학의 경우 근현대를 지나면서 제도적 뒷받침을 상실하면서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6. 정체성 핵심의 여러 유형

정체성의 핵심[core]이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또는 주요 요소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한의학 관련 연구는 최소한 어떠한 한의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한의학 교육에서는 어떠한 것이 필수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는지 등등이다. 한의학 정체성의 핵심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이는 연구, 교육, 임상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를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형적인 요소들

① 전적[Text]

여기서 전적은 한의학 전반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거나 혹은 여러 의학 분과 및 학파의 가장 기반이 되는 Text를 말한다. 『黃帝內經』, 『東醫寶鑑』, 『東醫壽世保元』, 기타 주요 의서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국한의학의 특징을 말하고자 하면 먼저 『東醫寶鑑』이라는 의서를 상징적으로 떠올리게 되는데, 만약 『東醫寶鑑』을 한국한의학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삼는다면 『東醫寶鑑』의 내용을 연구, 교육하고 임상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체성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Text들에 대하여 단순한 역사적 史實과 유물로서 받아들이자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단순히 Text만을 정체성의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상징성이 지나치면 일종의 도그마로 빠질까 경계하는 것이다. 동의보감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쳐 맹신하게 된다면 이는 한의학을 오히려 퇴보시키게 될 것이다. 역사상의 전적 자체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사상이 중요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② 진료 행위의 수단

한약, 침구, 진맥 행위 등도 Text와 마찬가지로 정체성 핵심의 유형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즉, 한의학 임상에서 한약과 침구를 사용하거나, 진맥 행위 등

전통 진단방식을 사용하여 진찰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의 핵심이라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형식적 기준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서양 의학에서 침을 사용하고 있고 일부 한방제제를 사용하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한방 진료 행위를 하면서 전통적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한의학의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말하기 힘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최근 한의학의 정체성 논란을 촉발시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이다. 이와 같이 형식의 경계가 무너지는데 대한 반발로 고전적인 방식만을 강조하고 지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③ 치료 기술

치료 기술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노하우이지만, 오랜 임상치료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기술 중에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그것을 명문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체성 핵심의 유형적 요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東醫寶鑑』에 나오는 처방 중에서 특정한 병증에 통용할 수 있는 경험방들은, 어려운 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공표가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게 처방이 보완되었다는 점에서 치료 기술의 지적 자산 중 하나이다.

이러한 치료 관련 지식을 계승하여 사용하는 것도 정체성 유지의 한 유형이라 말할 수 있으나, 단점은 이론적 뒷받침이 없을 경우 새로운 임상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고 더욱 발전된 치료기술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임상 효능의 통계적 처리만으로는 가장 적합한 기술을 찾기 어려운 점이 바로 한의학의 특성이다. 귀납적으로만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 변화와 괴리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이미 축적된 지식들을 보완 없이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을 경우 또 다른 정체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2) 무형적인 요소

① 패러다임

한의학의 원리가 도출되는 밀바탕의 패러다임 또는 세계관도 정체성 유지의 핵심요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한의학 고유의 철학 사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과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특징적인 노하우들은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매우 효과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교육, 학습을 통하여 습득되는데 한의학의 패러다임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들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명확하게 명문화하기 힘든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대 학문의 사유방식과 전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서 양자 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한의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유의 세계관을 연구하고 반복적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정체성 논쟁의 해답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

② 사유방식

각 한의사의 머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유 패턴도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의학 정체성의 무형적 요소로 볼 수 있다. 보통 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類比推理 과정을 통하여 사유가 이루어진다고 본다.¹⁰⁾ 즉, 인간의 의식 속에서 대상에 대한 象을 형성하고 그 象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비슷한 것끼리 분류함으로써 범주별로 대상을 파악하는 사유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리 肝에 대한 상을 가지고 환자를 보다가 유사한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肝病으로 규정하는 변증 과정도 한의학적 사유 과정의 하나이다. 원래 이러한 종합적 판단은 인간 사유의 일반적 패턴이지만 한의학에서 더욱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¹¹⁾

그러나 類比推理의 사유방식도 패러다임과 마찬가지로 쉽게 규정하기 힘들며, 각 개인마다 제대로 사유가 진행되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보편

적인 인간의 사유방식을 더 강조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한의학 정체성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다.

③ 문화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한의학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요소를 한의학 정체성의 핵심으로 볼 수도 있다.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의학과 친숙해진 의식과 행위들이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면 여러 민간 치료법, 한약재와 관련된 상식이나 수침법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방법들과 구전으로 전해지는 한의학에 대한 신뢰감 등이 있다. 만약 한의사로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모른다면 정체성이 바뀐 것이라고 보며 마땅히 이러한 문화들을 잘 보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문화들을 계승하기만 하면 바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7. 정체성 핵심 요소의 결정과 변화

1) 존재 가치와 정체성

앞에서 정체성 핵심의 여러 유형들을 살펴보았는데 단순히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의 기준만으로 핵심 요소를 결정하기는 어려웠다. 그렇다면 정체성의 핵심을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존재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어떻게 함으로써 한의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가의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한의학은 한국 의학 전반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야 한다. 原典學의 경우라면 原典學은 한의학 전반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자신의 존재 가치 곧 사명[mission]인 것이다.

어떠한 존재가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할 때 그에 필요한 요소들이 바로 정체성의 핵심 요소가 된다. 여기서 자신의 존재 가치는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한의사에게 환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결국 환자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바탕으로

10) 白裕相. 黃帝內經의 類比推理方法論.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08. 14. pp.76-78.

11) 엄석기, 김세현, 최원철. 전통한의학 연구방법론의 현대화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 23(2). pp.103-104.

정체성의 핵심을 논의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mission을 생각하지 않고 정체성을 재정립하거나 유지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주변과 소통이 단절되어 정체성을 유지하기 힘든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즉, 정체성의 핵심[core]은 형식이 아니라 그 존재의 가치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의미이다¹²⁾.

존재 가치는 주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데 그것이 타자에 의하여 평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노력을 통하여 한의사는 스스로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 임상분야, 기초분야 공히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키워 나가는 것은 바로 연구자의 몫이며, 연구자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¹³⁾

2) 정체성의 변화

identity의 어원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체성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동일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데, 끊임없는 변화하는 주변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정체성이 흔들리면 자신감을 잃게 되고 정체성의 형식만을 고수하는 보수적 입장과 수동적으로 외부 변화에 끌려가는 주체성을 잃은 입장으로 분열된다.

정체성 유지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신뢰하는 상태에서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외부 변화를 인식, 판단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융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정체성의 핵심이 존재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의 형식은 당연히 조금씩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또한 능동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사명을 추구하므로 외부 대상과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유기체 모델에 있어서 하등 생물의 경우에는 당장 눈앞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급급하나 고등 생물일 수록 미래를 예측하고 상황을 분석하여 좀 더 많은

삶의 가치를 함유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한의학 정체성 논의에서도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전체를 조망하여 한국 의학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8. 原典學의 정체성

한의학 속에서 原典學이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려하여, 그 정체성의 핵심은 무엇이며 어떻게 정체성을 만들고 유지해 가는가, 또한 외부 환경과의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나갈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전 내용의 정확한 전달

고전 문헌이 담고 있는 지식, 사상 등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만약 『黃帝內經』이라면 1편부터 계속 이어서 재해석을 거치지 않고 원형에 가깝게 講하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유형의 고전 text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체성 유지의 핵심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한의학 현실에서 유용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별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text가 한문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반드시 의미의 해석이 다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의미상 해석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가능한 원형 그대로 전달해야 하며 가치 판단은 받아들이는 자의 몫으로 두는 것이다.

교육 측면에서 문헌을 연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거나¹⁴⁾, 문헌의 전문에 대하여 1차 한글 번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작업이다. 原典學 자체의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고전 내용의 재해석

고전 Text의 내용을 의미적으로 재해석하고 나아가 이로부터 원리를 도출해내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우선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현대의 상황과 비교하여 분석한

12) 정체성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외부 환경에 대응하면서 구체적인 상황 변화를 목표로 설정한 것이 바로 vision이다. vision은 추상적인 mission보다 구체적이며 가시적이고 객관적이다.

13) 최환수. 한의학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대학원. 1999. pp.117-129.

14) 문헌의 양이 많을 경우에 정규 교육에서 모두 소화하기 힘들므로 주로 전문 연구가 또는 그것을 지망하는 자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방식이다.

후 다시 개념을 정리해 나가는 어려운 과정이므로 연구자의 고도의 능력이 요구된다.¹⁵⁾ 단지 역사적 사료에 불과하던 문헌도 이러한 다양한 분석을 거쳐서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재해석을 통하여 만들어진 학문적 성과들은 과생되는 2차 연구에 활용되거나, 한의학 이외의 타 분야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의학을 현대에 맞게 적용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각 문헌의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분석되고 가치가 부여됨으로써 자연히 선별이 이루어지고 요약된다. 한의학 전체로 보면 임상에 필요한 지식과 이론이 정리됨으로써 발전의 기초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대한한의학원전학회의 내경 공통교재가 주제별로 나누어진 類編의 형식을 가지게 된 것도 궁극적으로 재해석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현대에 적용하여 재해석하기를 바라는 현실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해석에 대한 요구가 광범위하며 그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原典學이 한의학 또는 한국 의학계에 기여하는 측면으로 볼 때 재해석은 원전학 정체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단, 재해석의 작업이 한의학 정체성 유지의 목적이 아니라 한국 한의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명[mission]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보편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3) 철학적 사유방식에 대한 분석

한의학의 사유과정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과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 그것을 바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유하는지를 밝혀내는 연구이다. 이것은 문헌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연구되는 분야로서, 옛사람들의 사유과정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현대에 韓醫學 또는 原典學을 학습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사유과정도 분석해 볼 수 있다. 특히 현대인의 경우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 위에서 사고하므로 패러다임의 충돌이 실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의 방안을 모색해보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단,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높지 않고 과거에는 이러한 철학적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原典學 정체성의 핵심 요소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인간 중심 의학으로서 한의학을 규정할 때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패러다임의 충돌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이러한 사유방식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이후에 공부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이러한 사유과정이 대부분 인간의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사유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철학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의 사유 과정을 현실에서 똑같이 구현하려고 하는 인공지능 분야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4) 자료의 현대화 작업

문헌자료 또는 정보를 현대에 맞게 재가공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Data Base를 구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原典學 분야는 문헌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므로 문헌자료를 DB 형식에 맞게 가공하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고, 만들어진 자료에 각각 특성을 부여하는 것도 문헌을 재해석한 후에 가능한 일이므로 주로 原典學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할 연구이다. DB 설계의 경우에는 만약 한의학 지식정보 시스템의 지능형 검색엔진을 개발한다고 한다면¹⁶⁾ 한의학의 지식체계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특성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므로 원전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전학 정체성의 가장 핵심은 고전의 내용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개념과 이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의 성과는 논문이나 저서로 공개되고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달되는데 영향력이 크고 기여도가 높은 편이다. 실험 연구를 진행할 경우에도 이러한 재해석을 토대로 연구 주제를 정하고 기획할 수 있다.

또한 재해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문헌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15) 丁福誥. 조선조 의학 텍스트의 정치사상적 함의.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10. 23(1). p.252.

16) 白裕相. 한의학정보 검색엔진 개발을 위한 시소러스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1). p.155, 156.

하고 이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재해석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한의학적 사유 패턴을 다루게 되는데 이를 한의학 교육이나 전문가 양성 또는 한의학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原典學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한의학 전반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이상의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원전학 연구의 범위를 규정해야 할 때 정체성의 가장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¹⁷⁾

9. 한국 한의학의 특성과 정체성 유지

근현대를 거치면서 서양의학이 주류의학으로 자리 잡은 현실 속에서 한의학은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규정하고 설명해야만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체성 문제가 계속 야기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제도권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표준화, 객관화의 요구가 커지게 되면서 정체성 논의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한의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외부의 요구에 대해 단순히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우수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고 표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정체성 논의를 외부의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진행해 왔던 것과 달리 미래에 대한 발전적 논의로 보고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자세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 한의학의 정체성 논의가 청대 온병학의 정체성 확립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세계관을 재정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앞으로 새로운 세계관이 형성된다고 가정하면 그 방향은 당연히 현대 과학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과의 접목이 될 것이며, 그러한 세계관 위에서 질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핵심 요소들이 한의학의 정체성으로 남게 될 것이다.

原典學은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이 흔들리기보다는 정체성의 핵심 요소들의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패러다임의 충돌 속에서 한의학 고유의 지식 체계를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는 原典學 고유의 연구 영역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의학의 사유과정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한의학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작업들이 같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 온난화, 환경 파괴, 과학기술의 고도화, 지식 정보의 범람, 글로벌화, 노령화 등등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 환경이 변화하는 속에서 가장 인간에게 적합한 의학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시도가 나타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학의 패러다임도 변화할 것이다. 韓醫學 그리고 原典學은 단순한 정체성 유지의 차원을 넘어서 21세기에 적합한 인체관, 질병관을 다시 정립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III. 結論

韓醫學 정체성 연구의 대상은 그 정체성의 본질과 내용이 무엇이며 왜 유지해야 하는가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지는 않았다. 단지 정체성 논의 중에서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정체성의 내용을 다루지 않은 것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대상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연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정체성 유지만을 추구할 경우에는 오히려 유지하지 못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반추하여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재발견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의학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결과적으로 세계관과 패러다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다시 연구와 교육 및 임상 각 분야에 반영될 것이다.

17) 대한한의학회지 투고규정에는 게재 원고의 범위를 “한의학 원전과 관련된 이론 및 문헌연구(번역 포함), 기초학 및 임상학 실험, 증례보고 등으로 한다. 임상학 및 기초학 실험, 증례보고의 경우에는 분명한 원전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년에 게재된 논문의 유형을 살펴보면 1차 문헌에 대한 해석, 재해석을 통한 이론 연구, 정보화 관련 연구, 한의학 사유에 관한 연구 등에 대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아직 임상학 실험이나 증례보고에 대한 논문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정체성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유형, 무형의 형식적 기준으로만 결정할 수 없으며 그 이면에 있는 존재 가치 즉, 한국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의 사명 의식을 통하여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존재 가치가 확립된 이후에는 형식적으로 정체성 요소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한의학 정체성의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原典學 분야의 정체성도 한의학, 넓게는 한국의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 핵심 요소가 결정되며, 구체적으로는 고문헌에 대한 재해석을 기반으로 철학적 사유구조에 대한 분석, 한의학 지식 정보에 대한 현대화 또는 체계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헌에 대한 재해석은 특히 原典學 이외의 타 학문분야와 접목하여 파생되는 연구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07년 경희대학교 공모과제(과제번호 20070628)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 졌음.

參考文獻

<논문 및 저서>

1. 엄석기, 최원철. 本能과 本性에 基礎한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意義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 23(2). pp.63-87.
2. 丁福喆. 조선조 의학 텍스트의 정치사상적 함의.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 23(1). p.252.
3. 엄석기, 김세현, 최원철. 전통한의학 연구방법론의 현대화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 23(2). pp.103-104.
4. 白裕相. 黃帝內經의 類比推理方法論.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08. 14. pp.76-78.

5. 白裕相. 한의학정보 검색엔진 개발을 위한 시소러스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 19(1). p.155, 156.
6. 최환수. 한의학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대학원. 1999. pp.117-129.
7. 홍원식. 중국의학사.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p.299. 1984.

<기타>

1. 다음 국어사전. <http://krdic.daum.net/dickr/contents.do?offset=A034015900&query1=A034015900#A034015900>. 2010. 7. 25.